

GDP 대비 두배 가까운 고성장 행진

4억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라틴아메리카 잉크시장은 지난 몇 년간 침체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잉크시장 고객들과 소비 산업 분야들이 점진적으로 활성화되는 미국의 경기 회복 분위기를 따르기 위해 각 국은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 지역 이익구조는 브라질과 같은 대형 시장에서의 판매실적에 많이 좌우됐으며 멕시코와 같은 달러화 강세 지역에서의 판매실적은 외국인 감소에 따라 고전을 면치 못하는 측면도 보였다.

멕시코 멕시코시티 지역 선케미컬잉크의 제너럴 매니저인 엔리크 페레즈 시레라(Enrique Perez Cirera)는 “지난해 멕시코의 잉크산업은 안정적이었지만 가격하락이 있었다. 이에 판매량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고 밝혔다.

건실한 GDP 성장, 인플레이션 하락 등 호재 많아

잉크시장의 성장률은 국내 총생산 성장률과의 연관성 속에 있으며 GDP 점유율은 선두 몇몇 분야 단 몇 %포인트의 마진을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마이클 가빈(Michael Gavin)이 운영하는 미국 코네티컷주 그린위치에 소재한 UBS시큐리티의 경제분석팀에 따르면 지난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평균 GDP성장률은 1.1%였다. 반면에 이 지역의 잉크시장은 3.0~4.0%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UBS팀에 따르면 올해 이 지역 경제성장률은 3.9%, 잉크 시장 성장률은 5.0~6.0%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도 지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이 지역 인플레이션은 GDP 6.7%였으며 올해는 6.1%, 2005년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올해의 외국인 환율은 경기확장으로 더욱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협정으로 미국·EU 지역 접촉 확대

부채, 파산, 채무불이행 등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라틴아메리카 몇몇 지역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로 존재한다. 그런 가운데 잉크 시장과 고객 산업의 통합작업은 지속되고 있다.

선케미컬잉크 멕시코 사업 본부의 마이클 머피(Michael Murphy) 이사는 “우리는 특히 멕시코 인쇄산업 분야에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수의 회사들을 합병했다. 또한 멕시코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우리가 일할 때와 똑같은 세계 수준의 기술로써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소규모 업체들 또는 교역업체들은 전통적으로 유지하던 기본 신용장(letter-of-credit-based)거래에서도 대형 잉크 업체가 더욱 선호하는 개방형단기신용장(open-ended short-term credit) 거래의 확대 압력이 증대됐다.

산체스S.A. de C.V.멕시코시티의 어네스토 산체스(Ernesto Sanchez) 관리이사는 “우리는 이 지역에서 올해에도 지난해와 똑같은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포장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들까지 포함한다. 특히 마스터팩(Masterpak)과 같은 회사들은 대금지급이 매우 더딘 업체다. 그러나 마스터팩은 지난주 베미스(Bemis)에 팔렸으며 베미스는 이를 시정할 방침인 것을 알려줬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소재의 베미스(Bemis)Co.는 지난 5월말에 멕시코 탈티트란 소재의 컨버팅을 포함한 마스터팩S.A. de C.V.의 연포장



부문 자산실적을 구매했다. 마스터팩의 연간 판매량은 대략 3500만달러 규모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내 잉크 회사의 한 경영자는 “대규모 국제 회사들은 현지 사업소의 부채율이 높아지고 이자율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의 은행과 같은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그들의 고객들에게 재정적으로 더욱 많은 비용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익명의 경영자는 시장에서 유행하는 퍼지크레디트 용어들과 함께, 제품의 제공은

수요를 초과한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경영자는 “시장에 과잉 출시된 제품들로 인해 대형 회사들은 가격경쟁에 휘말리게 된다. 몇몇 회사들의 판매 단가가 믿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말했다.

이 지역 5대 경제대국인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의 성장률은 연계된 나라들과의 자유무역 조치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그중 멕시코는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미국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그룹으로 형성돼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칠레는 남미공동시장(Mercosul)을 통해 미국보다는 유럽연합과 더욱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콜롬비아는 안데스조약(Andean Pact)을 활용,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에 동시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쌍방협약은 이 지역 경제 성장률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멕시코를 필두로 한 몇몇 나라들은 무려 수십 개의 쌍방 자유무역 협약을 맺고 있다.

GDP 6800억달러의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 잉크 시장은 국가 경제의 주요 부문으로서 다양하면서도 건강한 성장률을 보인다.

지난해 12월, 멕시코시티에 소재하고 있는 미국상업부(U.S. Commerce Department)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멕시코와 미국의 무관세 협정에 의해 올해 멕시코 박스인쇄 물량도 3.0~5.0%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멕시코 ... GDP 성장률 두배 이상 질주

1억5500만달러로 추정되는 멕시코의 잉크시장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까지는 작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다.

산체스S.A. de C.V.멕시코시티의 산체스는 "2003년에 지난 2002년 보다 3.0% 증가한 7234톤의 잉크를 생산했다. 지난해 GDP 성장률이 1.3%였기 때문에 여전히 GDP 두 배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의 성장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기대도 많다. "성장률은 올해 5월말 현재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국가 경기 회복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역 성장률의 커다란 지표가 되는 멕시코의 GDP는 지난해 1.3%와 비교, 올해는 3.9% 성장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올해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3.7%에서 3.5%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폐소화 가치는 미화 1달러당 164멕시코페소의 지난해 기준에서 올해에는 미화 1달러당 약 175멕시코페소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GDP 6800억달러의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 잉크 시장은 국가 경제의 주요부문으로서 다양하면서도 건강한 성장률을 보인다. 선케미컬의 페레즈는 "그 중에서도 포장은 가장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체스는 "지난해 플렉스 포장분야는 잉크분야 최고의 스타였고 올해도 여전히 출판 등 다른 분야보다 활동적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우리 회사는 그라비아 잉크 분야에서 14.0%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매엽 오프셋 분야도 2.6% 증가했으나 콜드셋은 6.0% 감소했다. 이에 전 부문의 평균 성장률은 꽤 좋은 수준인 3.0%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멕시코시티에 소재하고 있는 미국상업부(U.S. Commerce Department)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멕시코와 미국의 무관세 협정에 의해 올해 멕시코 박스인쇄 물량도 3.0~5.0%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브라질 ... 2003년 6%대 증가

브라질 상파울로 소재 브라질그래픽산업협회(ABIGRAF) 산업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브라질의 잉크판매량은 전년도의 5만8천톤에서 6만1500톤으로 6.0% 증가, 판매 가치도 19억5700만달러에서 20억8600만달러로 6.6% 증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의 브라질 GDP 성장률은 0.5% 성장에 머문 2003년의 실적에 비해

괄목한 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3.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 경제 지표들은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게 한다. 지난 1/4분기의 산업 제품 시장은 전년 동기과 비교 5.8% 상승했고 소매 제품 시장도 지난해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동시에 브라질 인플레이션은 2003년에 기록했던 9.6%에서 6.0%까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지난해 미화 1달러당 2.98

에서 올해는 3.1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달러화 가치가 멕시코의 영향으로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GDP 5510억달러 규모의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그래픽산업협회는 브라질 잉크 시장에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분야는 지난해 11억달러를 기록, 5.0% 증가한 출판분야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포장은 16.0% 증가한 9억2천만달러, 비즈니스 품은 17.1% 증가한 7억5천만달러, 문구류는 19.5% 증가한 4억6천만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 1억2천만달러 수준 회복 예상

아르헨티나 올해 GDP성장률은 4.9%로 예상된다. 이는 2002년에 10.9% 감소한 것에 대한 반등으로 2003년에 기록한 6.5% 증가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은 2002년의 41%에서 지난해 2.6%까지



급락했지만 올해는 반등효과로 9.3%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안정세를 나타내는 환율은 2003년과 같은 수준인 미화 1달러당 2.75아르헨티나페소를 지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1840억달러 규모의 아르헨티나는 글로벌 잉크 산업 부문에서 중요한 시장의 하나이다. 브에노스아이레스 산업그룹 아르헨티나 연방그래픽산업협회(FAIGA)는 아르헨티나의

올해 상반기 경기는 지난해 동기 수준인 6.1%를 능가하며 역동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반적인 경기의 호전과 함께 잉크시장도 호경기였던 2001년도의 1억2천만달러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콜롬비아 ... 1/4분기, 산업용 4.6% · 소매부문 7.3% 증가

올해 콜롬비아의 GDP성장률은 지난해 기록했던 2.6%에서 약 1% 상승한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1/4분기의 실적은 더욱 강세를 나타냈다. 산업용은 지난해 동기대비 4.6% 증가했고 소매부문도 전년대비 7.3% 증가했다. 2004년 인플레이션은 지난해의 6.1%에서 약간 하락한 5.7%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환율도 2003년과 같은 미화 1달러당 2.845콜롬비아페소에서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GDP 규모 930만달러의 콜롬비아도 이 지역 잉크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오랫동안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투명한 사업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칠레는 대부분의 남아메리카 지역국가들을 포함하는 남아메리카 지역 교역 연합체인 커몬마켓(Common Market) 또는 남미공동시장(Mercosul)의 중요 회원이다.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남미공동시장을 통한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주도권을 겨냥한 FTA 협상이 성숙 단계에 있으며 EU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아직 협상 초기 단계다.

으며 특히 지난해 인쇄 및 그래픽아트 산업은 4.6% 성장했다. 그리고 보고타 트레이드그룹 콜롬비아산업커뮤니케이션그래픽협회(ACICG)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 활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잉크 회사들은 전반적으로 평균 120억달러의 판매량을 보이며 호조를 띠고 있다. 미국 뉴욕에 소재한 켈리잉크(Kerley Ink)의 찰스 데 라 록(Charles De La Rock) 라틴아메리카 판매팀장은 "우리는 콜롬비아에서 매우 좋은 실적을 쌓고 있다. 상대적으로 노동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유럽회사들은 콜롬비아에서 포장 서비스를 아웃소싱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올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칠레 ... 아메리카 대륙 FTA협상 성숙 단계

칠레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4.6%로 예상된다. 이는 2003년에 달성했던 3.3%에서 조금 증가한 수치다. 지난 몇 해 동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2.0~3.0% 사이에서 고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3년도에 미화 1달러 당 625칠레페소를 기록했던 환율은 623.6선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GDP 890만달러 규모의 칠레는 산티아고에 2개의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는 마켓리더 선크미컬칠레 같은 회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오랫동안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투명한 사업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칠레는 대부분의 남아메리카 지역국가들을 포함하는 남아메리카 지역 교역 연합체인 커몬마켓(Common Market) 또는 남미공동시장(Mercosul)의 중요 회원이다.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남미공동시장을 통한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주도권을 겨냥한 FTA 협상이 성숙 단계에 있으며 EU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아직 협상 초기 단계다.

에콰도르 ... 품 인쇄수요 활성화 기대

에콰도르는 현재 U.S달러에 기반하고 있지만 높은 투자와 그 이외의 인프라들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GDP 성장률도 지난해의 2.0%에서 올해에는 3.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5%를 기록했던 인플레이션도 올해는 4.5%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은행 포트폴리오와 국영 회사 및 정부 판매물량을 통한 품 인쇄 수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GDP 300만달러의 에콰도르는 수출산업, 포장과 다른 잉크 시장 분야의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데스조약(Andean Pact)에 따른 교역의 장점들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갑준 차장〉